



■ 들어가는 말

성경에는 성도들의 삶을 표현한 그림(비유)이 많습니다. 병사, 농부, 경기하는 선수 등 (딤후 2:4~6)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하는 선수는 상을 얻기 위해 달음박질하는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범사가 달리는 달음박질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음박질 여부(잘하고 못함)에 따라 있는 곳에서 순위와 상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신분이 매겨집니다.(금, 은, 동) 성경은 우리 인생을 운동장에서 달음박질하는 선수로 비유합니다. (빌3:12-14, 딤후2:5, 히12:1-2).

※ 과연 선수의 자세와 목표는 어떤 것이며,  
또한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기로 합니다.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시다. (빌3:12-14)

-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 [14]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 이상의 말씀은 무슨 말씀 입니까? (빌 3 : 12-14)

2. 오늘 본문 말씀은 달리는 선수의 자세와 목표를 증거합니다.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 합니까? (12-14)

■ 또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시다. (딤후 2 : 5)

[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 무엇을 시사합니까? 경기 수칙/법칙대로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일이나 신앙 세계의 일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2.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까?  
(히12 : 1 - 2 )

3. 우리가 이러한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히12: 1-2)

4. 오늘 주제(나는 달리는 선수)와 관련해서 본문의 기록자 바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라질 영광의 메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빛나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와 목표를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7-8)